

「匈」名義考

崔 鶴 根*

(一)

「匈奴」에 관해서 중국의 사서(史書)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司馬遷이撰한「史記」의 卷一百十의「匈奴列傳第五十」에는

「匈奴，其先祖夏后氏之苗裔也。曰淳維，唐虞以上有山戎，獫狁，葷粥，居于北蠻，隨畜牧而轉移，……中略……逐水草遷徙，毋城廓常處耕田之業，然亦各有分地，毋文書，以言語爲約束，……下略。

이상에서「匈奴，淳維，獫狁，葷粥，山戎」등은 중국인들에게 의해서 시대시대에 따라서 표기된 이들의 족명으로서， 다시 말하면，동명이사(同名異寫)라고 할 수 있다.

또「索隱」註에는

「索隱曰 匈奴別名也。唐虞已上曰山戎，亦曰葷粥，夏曰淳維，殷曰鬼方，周曰獫狁，漢曰匈奴，正義曰葷音薰，粥音育」

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동「集解」에는「匈奴傳曰，唐虞以上有山戎，獫狁，葷粥，居于北蠻」이라고 기록하고， 또 같은 책 다른 곳에서는「晉灼云 堯時曰葷鬻，周曰獫狁，秦曰匈奴」라고 기록해서 그 기록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명칭이 제일 오래된 것이고， 또 어느 명칭이 후대의 것인가를 알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이중의 여러 명칭중에서 「匈奴」가 제일 후대에 불리워진 명칭이고, 또 현재까지 「匈奴」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匈奴」의 「-奴」는 중국인들이 그 오래된 적대감에서 멸칭으로 접미한 것이고, 그 당시(秦, 또는 漢時)에는 「匈」이 그 자칭의 실명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외의 명칭들은 「淳維」[ch'uen-yü], 「菑粥」[huen-yü], 또는 「山戎」[shan-yüng], 「獫狁」[hsien-yün] 등으로 발음되어서, 그 신구를 가리기 곤란하고, 대체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명칭에 대한 이사들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중에서 「獫(獵)狁」[hsien-yün]은 우리 한자음으로는 현재 「험윤」[höm-yun]이 되고, 「獫」字나 「獵」字의 어두음은 [h] 음이지만, 옛날에는 [k] 음이었었고, 중국고대에는 [kóm-yun]으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獫(獵)狁」[kóm-yun]은 蒙古文語에서 「사람 : 人間」을 지칭하는 어휘 “küün”과 흡사하게 발음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hün”(사람—khalkha 방언)이, “küün”에서의 후계어라고 본다면, 「匈」은 「獫狁」에서의 후계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자의 경우가 일치하는 것이다. 즉

küün > hün = 獫狁 > 匈

은 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13세기~18세기의 몽고어에 관한 기록등에서는 그 어형축소의 중간 단계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元朝秘史	gü'ün(사람)
華夷譯語	gü'ün(사람)
p ^h agspha 文字	küün(사람)
滿洲源流考	實納昆(新納 新也, 昆 人也 = sine küün)

또 현대에 와서 몽고각지방에서, 이 “küün”어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Khalkha (Xalxa) 어.	Xün(hün: ХҮН)	“사람. 人. 他人. 人間”
Kalmück 어.	kümn, kün	“mensch”;
Dayur 어.	Кун~Kw,	“id”;
Ordos 어.	Xwn,	“id”:
Burijat 어.	Xwŋ,	“id”;
monguor 어.	Kun,	“id”;

이상에서 「匈」족이 자칭 그 족명을 “kümün”이라 칭명했었을 때에, 중국족들은 「獫狁」으로 표현했었고(또는 「淳維, 葷粥」), 또 “hün”으로 변화했었을 때에는 「匈」으로 표현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류의 많은 족속들이 그들의 족명을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자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匈」족 또한 「우리만이 사람(人間)이다」하는 양으로, 그 족명을 「사람」이라고 자칭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二)

이 「匈」족 중에는 중앙—아시아지방에서 「東」방으로 진출한 일파가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이들을 「東胡」족이라 명칭했었고, 서양인들은 그 음을 따서 “Tungus” 족이라 칭명한 부족들이 이들에 해당한다.

이 때에 「胡」는 “hün”(匈奴)에 대해서, 「사람」을 “kün, gü, kü, gü, hü” 등으로 발음하고, 이를 또한 스스로 그 족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또 다른 일파의 「匈」족을 지칭해서 「胡」족이라 칭했었는데, 그들이 주로 「東」방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총칭해서 「東胡」족이라 일컫었다.

따라서 「匈」족과 「東胡」족은, 그 중국식명칭은 다르지만, 실은 거의 동일족의 명칭과 다름없었다.

또 「匈」족, 그리고 「胡」족들과 그 근원은 같으면서도,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독립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 동방으로 동방으로 진출해 온 일군의 부족이 있었으니, 주로 「秦北」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을 중국인들은 그 문헌에 「獫(緄)狁」, 또는 「胡狁」이라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칭하는 「코마」[koma]라는 명칭을 중국인들이 漢字로 모사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고마」[胡貊, 獺貊 : koma]족은 한 때 興安山脈 東쪽에 있는 「曩離」 또는 「豆莫婁」라는 곳에서 東胡族과 이웃해서 居住했던 흔적도 있으나, 그 後 南下하고 후대에 와서 「扶餘, 高句麗, 高麗」 등으로 그 국명을 한자로 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國名」으로서, 중국의 「魏, 漢, 晉, 宋, 齊」 등에 대한 대외적인 명칭이었고, 그들의 「族名」은 아니었다.

서기 663년에 新百濟王 餘豐이 文羅武王에게 패배하고, 또 그 5년 후인 서기 668년에 唐·新羅연합군에게 高句麗가 패퇴하니, 한반도는 唐과 新羅의 분할점거한 바가 되고, 百濟人들과 高句麗人들의 상류계층은 스스로 유민이 되어서 뿔뿔이 각지로 흩어지는 바가 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분은 「日本」으로 피난류입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실지로 「續日本紀」 권七, 서기 716년 5월조에는 “「關東地方 7개국에 산재해 있는 「高麗人」(고마우도) 1799명을 武藏國(現埼玉縣)로 옮겨서 「高麗郡」(고마—고오리)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현재도 이지방에는 「高麗神社」 「고마—진자」가 있고, 그 최초의 首長인 若光王의 59대손인 「高麗氏」(고마우지)가 공사로 있으며, 「高麗氏」를 대대로 그 성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자칭하는 「고마」[koma]는 중국사에 기록된 「獺貊, 胡貊」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중국 고대사에 기록된 「獫狁」[kü-mün]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즉 그들의 주류가

「獫狁」[kü-mün] > 「匈」[hün]

으로 변화되어 칭명되는 동안에,

또다른 지파는 「胡」[kün, gün, kü, gü, hü]로 기록되고, 주로 「東方」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東胡」란 명칭으로 중국인들에게 칭명되었었다. 그러나 [kün, gün, kü, gü, hü] 등의 제어형은 [hün]과 마찰가지로 [kü-mün]에서의 변화된 방언형들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高句麗人」들이 자칭하는 「고마」[koma]도 전기 「獫狁」[kü-mün]의 방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간자음 [-m-]이

탈락하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 반면에, 어말의 [-n-]이 탈락한 방언형의 경우이다. 따라서

「獫狁」[kümun] > [koma] (穢貊, 胡貊, 高句麗)

의 등식이 될 수 있다.

([ö,ü] 모음은 몽고·터-키족이 후대에 발전시킨 모음이고, 원래부터 알타이공통 사회시대부터 있었던 모음은 아니다.)

(三)

「고마」[koma]는 高句麗인들이 자칭하는 족명이었지만, 이들과 동족이었다고 믿어지는 百濟인들도 「고마」로 자칭한 흔적이 있다.

현 「公州」의 本百濟지명은 「熊川」이었고, 또 新羅時에는 「熊津」이 있었는데, 「龍飛御天歌」에는 「고마누르」(三:15)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현 「公州」의 「公」은 「고마」의 단축형인 「곰」을 「公」(공)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 그 城名과 地名에 「고마」라고 읽혀지는 예가 많은데,
北史 百濟條에는,

「百濟王姓餘氏 其都曰居拔城, 亦曰固麻城」

또 梁書 百濟條에도

「百濟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擔魯 如中國之郡縣也」

이상의 「固麻城」은 「고마」족이 살고 있는 城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世祖實錄地理志, 全羅道益山郡條에는,

※ 益山郡本馬韓國 及百濟始祖溫祚并之, 自後號金馬渚 新羅改金馬郡;

※ 長興郡條, 遂寧本百濟古馬彌知縣;

※ 羅州牧條, 部曲六……金磨部曲, 在州南 金磨里;

※ 靈岩郡條, 昆涓本百濟 古彌縣;

그리고 「百濟」의 지명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咸鏡南道」에는 「蓋馬高原」이 있다.

後漢書：「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地東」

(案原註 蓋馬縣名屬元菟郡，其山在今平壤城西，平壤即王儉城也)

또 「檀君神話」에는 「一熊」과 「一虎」가 「同穴而居」하며, 「願化爲人」했으나, 「一熊」만이 「得女身」하여 「桓雄」과 혼인하고, 「孕生子 號曰檀君王儉」했으니, 다시 말하면 「고마」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군신화에서의 주안점은 동물인 「熊」보다는 「熊」의 명칭인 「고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